

우테나 성터

미즈시마 성이라고도 불리는 우테나 성은 기쿠치 일족이 와이후의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를 지키기 위해 구축한 십여 곳의 중세 시대 성 중 하나입니다. 기쿠치 가문이 거주하던 성에서 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고원의 끝에 서쪽을 향해 지어졌기에, 기쿠치 강의 아득히 먼 하류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입지와 더불어 언덕 바로 아래에는 우치다 강이 흐르고 있었기에 우테나 성은 매우 침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는 1375년 기쿠치 가문과 무가가 주도하는 중앙 정권 아시카가 막부의 싸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규슈 전역을 지배하던 기쿠치 가문은 아시카가군의 장군 이마가와 료순(1326-1420)의 손에 의해 잇따라 좌절했고,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땅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쿠치 가문의 저항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료순은 미즈시마 전투에 수만 명의 병사를 동원했지만 당시 아직 12세였던 새로운 영주, 기쿠치 다케토모(1363-1407)가 이끄는 약 2,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에 패했습니다. 다케토모의 승리는 료순의 기쿠치 가문 정벌을 늦추었지만, 6년 후 그 목적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